

# 기아차 파업 장기화... 지역경제 '찬물'

### 세차례 부분 파업 생산손실액 167억 달해 카렌스 등 수출 차질...대외 신뢰도 하락도 250여 협력사 피해액 커져 경영압박 우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부분파업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조는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지난 2일 주·야 2시간, 10일과 16일 주·야 4시간 파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8일 주·야 6시간씩 파업시간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의 생산손실액도 크게 늘어날 태세다. 16일까지 20시간 파업으로 생산차질대수는 1천220대, 매출손실은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32시간 파업으로 생산차질대수는 810대, 매출손실은 28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서 수출 인기가

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렌스 등에 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국내외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0여개에 달하는 광주공장 협력업체의 피해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공장에 따르면 이들 협력업체들은 16일까지 파업으로 4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하남산단내 A업체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파업 등으로 인해 광주공장의 주력차량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 인해 부품 납품량도 줄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징검다리식 부

분파업이 오는 9월 초 양산에 들어갈 신차 '쏘울'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면서도 "광주공장과 지역민 모두가 기대하는 쏘울이 차질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의 빠른 정상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1일 "고객이 믿고 탈 수 있는 품질 좋은 차(쏘울)를 제 때에 만들어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게 할 것"이라며 "품질 확보와 납기준수를 약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포티지·카렌스에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의 야심작으로 알려진 '쏘울'은 오는 9월초 양산에 들어가 연산 10만대를 생산,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글로벌 경쟁선 혁신만이 살길"

### '혁신전도사' 변신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 소장 포스코특수강 임직원 대상 강의 뜨거운 호응



별 TBM 혁신대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의 방법과 성과와 강의를 한 바 있다.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의 혁신철학이 담긴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허 소장은 지난 14일 경남 창원 포스코특수강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양제철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내용의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허 소장은 강의를 통해 광양제철소에서 이뤄지는 '혁신동아리'와 '마이 머신(My Machine)', '비주얼 플래닝(Visual Planning)' 등의 혁신기법을 소개하고, '세

계 최고의 자동차강관 전문제철소 완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매진하는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도 허 소장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매일경제-휴넷 MBA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글로벌 조직역량을 구축에 관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파했다.

이에 앞서 허 소장은 광양시청, 광주고등검찰청, 여수 해양수산청, ㈜농심, 순천지방 검찰청, 글로벌 TBM 혁신대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의 방법과 성과와 강의를 한 바 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삼성전기, ㈜농심, STX그룹, GS칼텍스 등 40여 개사에서 2천여명이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혁신활동을 벤치마킹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차 전차종 내달 2% 인상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다음달부터 내수 및 수출 전차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기아차는 지난해 말부터 고유가, 철관가격을 포함한 각종 원자재가, 물류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같이 가격 인상을 단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아차는 "가격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연구개발, 구매, 생산, 판매 등 전 분야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분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첫 임원진 회의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회장 김보근)는 1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협회창립을 위한 임원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회원기업 확보방안, 홍보 강화, 중기청과 지자체 협력유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방 관광·물류단지 조성 내년 7월부터 부담금 면제

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 조성 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나 물류단지 조성 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

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되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조성 주체일 경우에는 12.5%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

## 소외계층 돕기 대형 바자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이 지역내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광주점은 18~24일 '실종어린이 찾기 사랑의 대바자'를 진행한다.

18일부터 3일간 1층 정문에서 실종 예방 캠페인 동영상 상영, 어린이재단과 실종어린이 찾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시민 5만명 서명을 실시해 시민운동을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이어 오는 25~31일 1층 정문에서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대바자'를 열어 부모를 잃은 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세일글

### "먹을거리 안전검증 대폭 강화"

#### 이재홍 광주본부세관장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취임한 이재홍(54) 광주본부세관장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업무수행체계를 실용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친화적인 실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이 세관장은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강화, 불법수입농산물 반입 및 유통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원산지 시증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음성출신인 이 세관장은 청주대 법학과를 나와 1976년 7급 공채로 세관과 인연을 맺었다. 부인 진삼심 여사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 신차 CUV '쏘울' 공개



기아차 광주공장이 오는 9월부터 출시하는 신개념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쏘울(Soul·사진)'의 모습을 공개했다.

기아차는 16일 쏘울의 외관사진과 엔진, 차체 크기 등 주요 제원을 밝혔다. 쏘울은 사물의 핵심, 정수, 생명을 뜻한다.

쏘울은 1,600cc 및 2,000cc 가솔린 엔진과 1,600cc VGT 디젤엔진

이 장착된다. 주요 제원은 전장 4천105 mm, 전폭 1천785 mm, 전고 1천610 mm, 휠베이스 2천550 mm다. 지난 200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첫 선을 보인 쏘울은 같은 해 바로 콘셉트카 디자인이 양산 디자인으로 결정될 만큼 디자인에서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유선형 일색인 차량 디자인에서 탈피해 개성있는 외관 라인을 살리

기 위해 직선형 디자인을 채택,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디자인철학인 '직선의 단순화'를 구현한 점이 눈에 띈다.

쏘울은 오는 9월 국내시장 출시

에 이어 10월 파리모터쇼에서 공개돼 해외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유럽과 미국시장에는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런칭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맛과 멋이 살아있는

# 청정골 화순읍에서 '이침이슬' 택지 잔여세대 특별분양!

분양가격의 60% 대출 가능

공주 - 화순간 4차선도로 2008년 착공

화순전대병원, 마트, 학교, 은행 등 화순읍 3분거리

전세대 남향 고층 4m 거리로 풍상호양권 확보

간접로,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케이블 기반시설 완료

토지분양면적 : 231~660㎡ (70~200) 선택 가능

### 택지분양

유연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간접로,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케이블 기반시설 완료

간접로,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케이블 기반시설 완료

간접로,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케이블 기반시설 완료

NAVER 주소창에 011-504-5235 입력 후 [화순전대병원] 검색